

“신인의 자세로 준비...12번째 우승 이루고 싶다”

KIA 나성범 입단식 ‘타이거즈맨’ 정식 신고

목표는 3할 타율·30홈런·100타점 이상
MLB 무산 아쉽지만 고향팀 입단 만족
김종국 감독 “후배에게 귀감 되는 선수”

KIA 타이거즈 나성범(33)이 등번호 4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타이거즈맨’으로 정식 신고식을 치렀다.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입단식을 가진 나성범은 “살면서 이런 자리와 기회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열심히 해서 축하를 받게 되는 것 같다. 긴장이 많이 된다”며 “리그가 개막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선수들과 하나가 돼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FA 최대어였던 나성범은 지난해 말 고향팀 KIA와 6년 총액 150억 원(계약금 60억 원, 연봉 60억 원, 옵션 30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진흥고-연세대를 거쳐 2012년 NC 창단 멤버로 입단한 나성범은 투수에서 타자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9시즌 동안 통산 1,081경기, 타율 0.312, 212홈런, 830타점, OPS(출루율+

장타율) 0.916을 기록했다.

나성범은 올 시즌 목표를 묻자 “당연히 우승이다. KIA 구단의 일원으로서 12번째 우승을 이루고 싶다”며 “저를 선택해준 장정식 단장과 김종국 감독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바뀐 유니폼 색깔이 어색하다. 하지만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던 유니폼”이라며 “검정과 빨간색을 원래 좋아했고 조화도 잘 돼 있다. 마음에 든다”며 웃었다.

나성범은 “어느 역할이든 준비됐다. 장타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며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것이다. KIA라는 팀에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NC 시절 나이 차이가 큰 선배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면서 “KIA에는 어린 후배들이 많은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포지션과 상관없이 먼저 후배들에게 다가가면 후배들도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고 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나성범은 꿈이었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지 못한 아쉬움도 KIA 입단과 함께 모두 떨쳐냈다고 고백했다.

나성범은 “작년에 MLB 포스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좋은 구단에 왔기 때문에 만족한다. MLB에 대한 꿈은 좋아하는 구단의 유니폼에 제 이름을 새겨서 입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단식에 참석한 김종국 KIA 감독은 나성범에 대해 “팀 퍼스트 정식으로 성실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수다.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어린 선수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나성범은 “계약기간 6년 동안 KIA에 있으면서 매 시즌 다치지 않고 꾸준히 내 몫을 다하면서 좋은 선수로 남고 싶다”고 희망한 뒤 “그리기 위해서 꾸준히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타점의 경우 나 혼자만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3할 타율, 30홈런, 100타점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 구체적인



KIA 나성범이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입단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치를 놓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열심히 하겠다”고 올 시즌 목표를 내세웠다.

프로 데뷔 후 등번호 47번을 계속 사용했던 나성범은 KIA에서도 47번을 달게 됐다.

KIA 이정훈이 양보하면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47번을 유지하게 된 나성범은 “후배가 흔

쾌히 양보를 해주지 않았을 47번을 달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KIA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나성범은 다음 달 1일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 이정훈을 직접 만나 따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중앙수비수 김승우 영입

광주FC가 U-23 대표팀 출신 중앙수비수 김승우(23)를 영입했다.

광주는 “제주UTD에서 활약한 김승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승우는 U-14 대표팀부터 U-23 대표팀까지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소화한 엘리트 유망주다.

2015 FIFA U-17 월드컵, 2017 FIFA U-20 월드컵, 2018 AFC U-23 챔피언십 등 각종 국제대회를 소화하며 29경기 2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보인고 시절 2016 전반기 전국고등학교 왕중왕전, 201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MVP)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컵을 들기도 했다.

2019년 제주에 입단한 김승우는 두 시즌(9경기)간 프로 무대에서의 여예를 마치고 지난 시즌 부산아이파크로 입대를 떠나 19경기를 소화하는 등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승우는 184cm 70kg의 체격조건을 갖췄으며 탄탄한 대인방어와 수비라인 조율, 안정적인 수비가 장점인 중앙 수비수다. 또 넓은 시



김승우

야와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에 능해 공격 전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우는 “광주는 조직력이 끈끈한 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제주 시절 이정호 감독님께 소통과 조직력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다”며 “팀에 잘 녹아들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권순우가 테니스 샤포발로프를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14위 샤포발로프에 발목잡힌 권순우 4시간 25분 풀세트 혈투 끝에 2회전 탈락

권순우(54위·당시시정)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 원)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권순우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테니스 샤포발로프(14위·캐나다)에게 2-3(6-7(6-8) 7-6(7-3) 7-6(8-6) 5-7 2-6)으로 역전패했다.

이날 권순우가 상대한 샤포발로프는 지난해 월별 단 4강까지 올랐고, 2020년 9월 세계 랭킹 10위에 올랐던 선수다.

2020년 US오픈 2회전에서 샤포발로프에 당한 1-3(7-6(7-5) 4-6 4-6 2-6) 패배 설욕

을 노린 권순우는 이날 3세트까지 2-1로 앞서며 3회전 진출 가능성을 불붙였으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4시간 25분 접전 끝에 분패했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2회전 진출 상금 15만 4,000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 랭킹 포인트 45점을 받았다. 권순우의 메이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해 프랑스오픈 3회전이다.

이날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 29-3, 공격 성공 횟수 81-29 등으로 샤포발로프가 압도한 가운데 권순우는 침착한 수비와 코스 공략으로 4세트 중반까지 오히려 경기 주도권을 잡았으나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승기를 잡은 권순우는 4세트 중반까지 서브 게임을 지켜가며 맞섰지만 5-6에서 시작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겨 결국 5세트로 끌려들어 갔다.

권순우는 5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당해 0-3으로 밀렸고, 결국 이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샤포발로프에게 3회전 진출 티켓을 내줬다.

서브 최고 시속 214km의 강서브를 앞세운 샤포발로프는 서브 에이스 29개를 고비마다 터뜨리며 경기를 풀어갔다.

권순우 역시 서브 최고 시속 202km까지 나왔지만 서브 에이스는 3개로 샤포발로프와 차이가 크게 났다.

권순우는 남자 복식에 마르코스 기론(미국)과 한 조로 출전, 호주 오픈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4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완승을 거둔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제공

페퍼저축은행 ‘연패 탈출’ 승리 원동력은 수비 집중력

기업은행 상대 첫아웃 승
디그 94개 시도 79개 성공
김형실 감독 “팬들께 감사”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4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22 25-21)으로 승리, 17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번 시즌 2번째 승리인 동시에 홈 첫승이기도 했다. 첫아웃 승리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9일 기업은행을 3-1로 꺾고 창단 첫승 감각을 누렸던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기업은행을 상대로 승수를 쌓아 상대 전적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이날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승점 8점(2승 22패)이 되면서 7위 기업은행(4승 19패·11승점)과의 승점 차를 ‘3’으로 좁혔다.

페퍼저축은행의 이날 승리 원동력은 수비 집중력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은 기업은행을 상대로 디그를 94개 시도해 79개를 성공시켰다. 특히 김세인이 디그 14개를 시도해 13개를 성공시키면서 수비 라인인의 중심을 잡았다. 박경현이 19개, 이현이 13개, 이한비가 11개를 견어올리며 힘을 보탤었다.

이전 경기에 결장했던 엘리자벳은 이날 양팀 최다인 23득점(성공률 42.9%)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기업은행은 김희진(15득점)과 표승주(12득점)가 분투했지만, 연이은 범실(21개)로 깊은 흐름을 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블로킹도 페퍼저축은행이 9개로 기업은행(6개)에

앞섰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세트에서 엘리자벳이 상대 외국인선수 산타나를 잘 견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인이 미친듯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문슬기와는 보이지않는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투지있는 수비력이 돋보였다. 분명 동료들에게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실에 대한 언급도 했다. 김 감독은 “범실이 다른 경기보다 적게 나왔다”고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범실 개수에서 13-21로 상대를 압도했다.

김 감독은 “경기 분위기가 일 년 같을 예감이 들었다. 선수들이 평소보다 장난기가 많았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다득점으로 맹활약한 엘리자벳은 “홈 첫승을 해서 굉장히 기쁜 상태. 엄청난 팀워크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장 이한비도 “오랜 연패 끝에 홈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항상 선수들끼리 모든 경기 최선을 다하자고 다독인다. 결과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좋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습하도록 아침부터 선수들끼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경기 전에도 많이 웃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패를 하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줘라’ 같은 응원 메시지가 힘이 됐다”며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홈에서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